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0.18(금) ~ 2024.10.24(목)

제공일시 2024 11 01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0.18(금) ~ 2024.10.24(목)

제공일시 2024 11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지긋지긋한 중국 '희토류 갑질'… 미국이 꺼내든 묘수는?

- 미국 국무부가 브라질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발표함

- 희귀 금속과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인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에 따른 조치임

-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SP는 브라질 기업 세라베르데가 운영하는 브라질의 펠라 엠마 희토류 광산을 지원함

(한국경제 2024.10.23)

2. 印, 美와 핵심광물 협약 추진… "글로벌 지배력 유지 中 겨냥"

- 인도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는 중국에 맞서고자 미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함

- 고얄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양국간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핵심광물 파트너십 협약으로 전환하고, 이 협약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자고 (최근 미국에) 제안했다"고 설명함

(연합뉴스 2024.10.20)

3. 멕시코, USMCA 재협상 대비해 선제 대응… "中 불공정 관행 분석"

- 미국·캐나다와 강력한 블록경제 체제를 갖춘 멕시코가 미국 대선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북미 3국 교역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분석하고 나섬

- 다만, 멕시코는 중국 측 투자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루이스 로센도 멕시코 경제부 차관(대외무역 분야)은 21일(현지시간) 지난 1일 출범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가 2026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미국·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을 신중히 평가 중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대응을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측) 관행을 뜯어보고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024.10.22)

국내 정책

1. 대통령실 “소형모듈원자로 4개 건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함

- 대형 원전의 전기 발전 용량이 약 1.4기가와트(GW)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1기당 전기 발전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MW)라는 점에서, 4개 정도를 묶어야 발전소 1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이란 설명임

- 박 수석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이러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반영은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함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박 수석은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2024.10.20)

2. 과기정통부- 美 에너지부, 양국 과학기술 협력 새 파트너… 기초·전략기술 협력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차관이 22일 화상을 통해 제럴딘 리치먼드 미국 에너지부 과학혁신차관과 면담을 갖고, 기초연구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이날 면담은 양 기관 간 논의 중인 협력 아이템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양측은 핵물리 분야 전자이온충돌기 프로젝트에서 향후 협력 방안과 핵융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특히 우리 측은 핵융합 분야 양자 협력 회의 정례화와 공동연구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고, 미국 양자정보과학 연구센터와의 공동 워크숍 개최를 요청함

(디지털타임스 2024.10.22)

3. 여수·보령·포항 공장서 뿜는 탄소… 재활용 사업부지 5곳 선정

- 탄소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 부지로 5곳이 선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전남 여수의 정유화학 공장,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 경북 포항의 제철소 등 5곳을 대규모 CCU 실증 사업 부지로 뽑았다고 밝힘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지와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YTN 2024.10.22)

글로벌 기업

1. 듀크에너지, 대기업용 '탄소 배출 제로화 프로그램' 확대

- 미국 최대의 에너지 지주 회사 중 하나인 듀크에너지(Duke Energy)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린 소스 어드밴티지 초이스(Green Source Advantage Choice, GSA-C)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밝힘

- 듀크에너지의 GSA(Green Source Advantage) 프로그램은 대규모 비주거용 고객에게 지역 듀크 에너지 그리드에 연결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재생 에너지를 확보, 전력 구매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함

(투데이에너지 2024.10.23)

2. 중국 태양광업체 징코솔라, 선그로우 독일서 상장 준비

- 중국 태양광 PV 제조업체인 징코솔라(Jinko Solar)와 중국 인버터 공급업체 선그로우(Sungrow)가 최근 잇따라 글로벌 예탁증서(이하 GDR)을 발행하고 독일에서 상장할 계획을 발표함

- 징코솔라는 이미 중국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상태임. 독일에서도 상장에 성공하면 중국, 미국, 유럽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초의 태양광업체가 됨. 중국 태양광업체가 유럽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임

(임팩트온 2024.10.23)

3. 소니와 혼다, 아마존까지 가세, 전기차에 AI 장착하고, 일본 산업계는 질화갈륨 전력반도체 장착 계획

- 소니 그룹과 혼다 모터가 협력해 공동 전기차(EV) 벤처기업인 소니 혼다 모빌리티(Sony Honda Mobility)의 자율 주행 기능 개발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한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0일(현지시각) 전함

- 이 두 회사가 만든 고급 전기차 '어필라(Afeela)'는 2026년까지 일본과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AI 기반 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혼다와 소니의 전기차 어필라에는 미국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도 적용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0.22)

4. 日 J-Power, 미국 화석연료 발전소 지분 매각...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일본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J-Power가 미국 내 화석연료 발전 사업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함

- 19일(현지시각) J-Power에 따르면, 자사가 보유 중인 11개 미국 발전소 지분 중 최대 9개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의 강화된 환경 규제와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됨

- J-Power는 미국 화석연료 발전소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호주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10.21)

국내 기업

1. 현대로템, 세계 최초 수소연료 기반 차세대 첨단 전차 만든다

-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 착수해 향후 로드맵에 따라 이를 실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용량 전동화를 통해 저소음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동력과 항속 거리를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차원임

- 2040년 이후 생산할 계획인 이 차세대 전차에는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할 계획임

- 전 세계에서 수소 전력을 활용한 전차 개발은 이번이 처음임

(연합뉴스 2024.10.23)

2. LG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배터리 모듈 양산' 돌입

- LG에너지솔루션은 22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인 넥스트스타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배터리 모듈 양산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힘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합작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49.5GWh(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약 4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내년까지 순차적 양산을 진행하게 됨

(CWN 2024.10.23)

3. '남부발전·가스공사·한화 참여' 하이랑 LNG 프로젝트, 특수 항만 보완계획 승인

- 한화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베트남 하이랑(Hai Lang)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전문 항만 인프라가 더해짐. 정부 지원에 힘입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22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MOT)는 최근 하이랑 LNG 발전소를 위한 특수 LNG 항만, 특수 운하, 방파제에 대한 보완 계획을 승인함

- 하이랑 LNG 발전소 완공 시 꽝찌성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며 베트남의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구루 2024.10.22)

4.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광구 탐사 작업 '속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광구 탐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미얀마 가스전 상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아시아 해상 가스전 개발 리더십을 확보함

- 21일 동자바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에 따르면, ESDM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탐사권을 따낸 붕아 광구의 3차원(3D)인공지진파 탐사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더구루 2024.10.2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0.18(금) ~ 2024.10.24(목)

제공일시 2024 11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싱가포르, 호주에서 해상케이블로 전기 받는다… 28조원 태양광 사업 조건부 승인

-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전력 케이블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음.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임

-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호주-아시아 전력 연결(Australia-Asia Power Link, 이하 AA파워링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호주의 선케이블(SunCable)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음

- 이번 프로젝트는 약 4300km의 해저 고압 직류(HVDC) 케이블을 통해 호주에서 싱가포르로 1.75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송전함. 이는 싱가포르의 현재 전력 수요의 약 9%에 해당함

- 지난해 12월 덴마크에서 영국으로 송전을 시작한 바이킹 링크는 육지와 해저를 포함해 765km를 연결함. 건설 비용은 4년 동안 약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가 들었음. AA파워링크의 케이블 길이는 바이킹 링크의 5.6배에 달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함

- 선케이블은 프로젝트를 위해 호주 북부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 120km²에 달하는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최대 6GW의 전력을 생산해 약 2GW는 싱가포르로 송전하고, 나머지 4GW는 호주 북부 최대도시인 다윈(Darwin)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할 예정임

-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장거리 전력 송전을 위한 고효율 HVDC 기술과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국가 간 전력 거래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기술이 필요함. 미테시 파텔 선케이블 임시 CEO는 "오늘 발표는 우리 프로젝트의 상업적,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밝혔음

- 선케이블은 AA파워링크 프로젝트가 호주 북부에 200억호주달러(약 18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와 건설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선케이블은 프로젝트 동안 인도네시아에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직접 투자해 제조, 건설, 해양, 유지보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싱가포르는 2035년까지 6GW의 저탄소 전력을 수입할 계획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지역 전력망에 연결해 풍부한 저탄소 전기에 접근할 수 있음.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아세안 전력망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 현재까지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는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저탄소 전기를 수입하기 위해 선케이블을 포함한 10개의 프로젝트에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을 발급했음. 이 중 5개의 프로젝트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2024년 9월에 조건부 허가(Conditional Licence)를 받았음

- 블룸버그에 따르면, EMA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청정에너지와 연계된 무결성 탄소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EMA는 탄소 크레딧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면 국가 간 전력 거래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지역 전체의 재생 가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임팩트온 2024.10.24)